

## 美 UMC 분리, 한인교회 선택 ‘복음주의 전통 감리교단’

복음주의 전통교단 현 장정 바탕으로 동성결혼, 동성애자 목사 안수 불허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성직 허용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미국연합감리교(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가 “교단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길” 합의안에 따라 오는 5월 총회에서 감리교 전통을 지키는 복음주의 보수교단(NEW MC(Methodist Church) 가칭)과 동성애를 허용하는 진보교단(PS(Post-Separation) UMC 가칭)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임 목사)에서 진행된 UMC 교단 상황 설명회에는 남가주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한인 교회가 나아갈 향후 진로를 모색했다.

동성에 반대 의견이 강한 미국 내 UMC 한인교회들은 감리교 전통을 지키는 새로운 보수교단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보수 교단으로 옮길 경우(타교단 제외) 교회 건물과 재산, 목회자 은퇴 연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교단 분리에 따른 소음 또한 적을 것으로 보인다.

‘UMC 분리’에 대해 교단 내 목회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고, 교단 정책에 따른 교인들의 이탈 없이 목회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리 후에도 선교나 전도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 분리 후 진보그룹에 속한 미국 교회를 개교회 차원에서 협의의 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오는 5월 총회 후 분리가 확정되면 복음주의 전통 교단에서는 현재 전통주의 장정을 기본으로 동성결혼을 불허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 또한 허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회들은 현 UMC 장정에 명시된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교회 내 동성결혼 허용, 동성애자 목사 안수 및 감독 선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UMC 지역 연회가 복음주의 전통 감리교단으로 이동을 결정했다면 교회는 별도의 과정 없이 연회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교단 분리 후 한인교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을 설명하는 (좌부터)류재덕 목사(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장), 류계환 목사(선교 총무), 안성주 장로(전국평신도연합회장)

다. 그러나 미국 내 대부분의 감리교 연회가 진보적 또는 중도적 성향

으로 PS UMC에 남을 확률이 높아 대다수 한인교회가 개교회 투표를

거쳐 복음주의 전통 감리교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 과정은 이렇다. UMC 내에서 전통 감리교단으로 이동을 원하는 교회는 오는 5월 교단 총회 이후 교회 임원회에서 교회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감리사에게 교회 총회 개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회와 “분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리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는 교단 분리에 따라 교회 임원회 명단, 교인 명단, 교회 재산 현황 등 교회 관련 서류 점검과 확보를 당부했다.

현재 UMC 내 감리교 정신과 전통을 고수하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교단 내 보수 그룹인 웨슬리안언약협회(WCA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통주의 감리교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경 또는 11월 초에 창립총회를 갖고,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감리교단 연회를 통해 교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中 수백 교회 철거한 강경파 인사, 홍콩·마카오 관리자로

종교 자유 억압하는 캠페인 이끌며 약 1천여개 교회 십자가와 건물 철거



샤바오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SCMP 보도화면 캡처

중국이 수백 개 교회 건물과 십자가를 철거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를 최근 홍콩·마카오 관리자에 임

명해, 홍콩 민주화 진영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3일 홍콩·마카오 사무관공실 주임에 샤바오롱(Xia Baolong)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부주석을 내정했다. 사무관공실은 홍콩·마카오 정부를 현지에서 관리하는 중국 본토 기관이다.

샤바오롱 부주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저장성

서기 시절 직속상관으로 시 주석을 보좌했다. 이후 2012년 시진핑 정권 출범과 함께 저장성 서기로 승진했다.

샤바오롱은 공산당의 종교 탄압에 앞장서 지역 전역의 십자가를 철거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2015년부터 저장성 지역에서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캠페인을 이끌며 약 1,000여개 이상의 교회 십자가와 건물을 철거했다.

항저우의 정치 분석가인 웬 카장

(Wen Kejian)은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반대파와 교회를 대하는 그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불행해했다”고 전했다.

저장성의 한 목회자는 박해감시단체 국제기독교연대(ICC)와의 인터뷰에서 “샤바오롱의 임명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그가 홍콩의 교회들을 박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영국령이었던 홍콩에서는 현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

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내정 간섭과 영향력 확대를 반대하며 7개월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홍콩 침례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장 피에르 차베스탄(Jean-Pierre Cabestan) 박사는 “시 주석은 처음으로 홍콩에 그의 최측근을 배치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샤는 중도적인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시진핑의 열정적인 봉사자임을 드러냈다. 이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해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파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와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2020 효사랑**  
**제8회 마주 청소년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행사 내용】  
작품 분야 : 글짓기, 그림 부문  
주 제 :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소주제 예제문: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등  
접수 기간 :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화) 마감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혹은 E-mail : hyosarangus@gmail.com (글짓기에 한함)  
그림 작품은 개인별로 접수  
참가비 : 1st child \$20, from 2nd child \$10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제출 및 문의 : 효사랑 선교회 ( 714.670.8004 or 562.833.5520 )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E-mail : hyosarangus@gmail.com  
【발표 및 시상】  
시 상 일 시 : 2020년 4월 25일 (토) 10시  
홀러트 장로교회  
(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상금 및 상품 : 대 상 (2) - 상금 \$500  
최우수상 (4) - 상금 \$300  
우수상 (6) - 상금 \$200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및 상장 수여  
효 글짓기 : Letter size 3 pages (글자크기 12pt)  
효 그림 : 14" x 17"  
(크레파스화, 수채화, Drawing, 아크릴 등)  
\* 작품 제출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10줄 이내의 내용 설명과 함께 Full Name, Grade, E-mail, Phone No. 를 꼭 명시해야 함  
\* 작품은 시상식 당일 행사 후 반환 가능  
후원단체  
O.C. 교협  
마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OC 장로 협의회  
www.oclc-oc.org  
openbank  
MICHELLE STEEL  
Steven CHOI  
STATE ASSEMBLY  
Sharon Quirk-Silva  
California Education News  
HAVEN  
가주 교 육 신문



# 그레이스 유 후보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선거 마지막 날까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그레이스 유 후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LA 10 지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 당선 기원 예배가 지난 14일, LA 광명교회(담임 김영석 목사)에서 남가주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레이스 유 후보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3월 3일 예비

선거에서 당선돼, LA를 넘어 미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날 “위대한 승리”(삼상 17:45-5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정현 목사(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과 같이, 그

레이스 유 후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는다”며 “믿음으로 전진해 미국 땅에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제 삶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기적들의 연속이었다”며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간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류당열 목사(전 남가주 교협 회장)는 “그레이스 유 후보가 미 주류

사회 정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미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 10 지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성원과 한인들의 유권자들의 등록 및 투표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 김지연 대표 “비정상적 성행위,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져”

‘성경적 성 가치관과 그리스도인’ 이란 주제로 남가주 교회서 세미나 진행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지난 16일,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에서 ‘성경적 성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성경적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지연 대표는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동성애 옹호 위주의 환경 속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미화만 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미국 10대 에이즈 청소년의 90% 이상이 남성간 동성애로 인해 발병됐다”며 “동성애의 유혹 앞에 놓인 청소년들이 동성간 성행위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매독 환자의 83%가 남성 동성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LA 사랑의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들은 잘못된 성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성행위는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성교육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립학교에서 게이, 레즈비언 부모

들을 장려하고 동성애 부부들의 자녀 입양을 권장하고 있다”며 “남녀간의 성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자신의 성을 고르도록 유도하면

서 아이들을 성 정체성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남자와 여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성기를 떼거나 붙여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들고 있거나 동성애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성적인 문란으로 몰아가는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녀들이 음란물 중독이나 성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쾌락 만능주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차세대를 위한 믿음의 양육자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가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 실무 12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1-20 자격신청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summitus37@gmail.com](mailto:summitus37@gmail.com)



##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b>귀국이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li><li>- 포장 재료 무료 제공</li><li>-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귀국자동차 운송</li><li>-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li><li>-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li></ul>
<b>시내이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li><li>-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li><li>- 포장 box 대여 및 판매</li><li>- 사무실, 공장 이사</li><li>- 창고 보관 가능</li></ul>	<b>타주이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li><li>-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li><li>-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li><li>-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li></ul>
<b>자동차운송</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li><li>-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li><li>- 초 저가 차량 운송</li></ul>	<b>해외이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하와이, 괌, 알라스카</li><li>- 중국, 일본, 남미</li><li>- 캐나다(밴쿠버, 토론토)</li><li>-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li></ul>

## ☎ 1-877-580-2424 ☎ (310)538-3333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mailto: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김정진 목사 공동회장으로 위촉

##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드리고 2020년 사역 계획 발표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이하 미주성시화)가 사역 확산을 위해 임원단을 증원했다.

미주성시화는 지난 17일, 창립 17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김정진 목사(기쁜우리교회)를 공동회장으로, 정찬용 변호사를 법률 자문으로, 김권수 목사를 지도 위원으로, 홍석자 권사, 이지락 장로, 김승현 회장을 이사로 위촉했다.

현재 미주성시화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OC 대표회장), 이성현 목사(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 대표회장),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캐나다 대표회장), 김상돈 목사(과테말라한인교회 과테말라 대표회장)가 지역 대표 회장 및 공동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와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도 공동 회장이다.

미주성시화는 현재 35명인 이사를 40명으로 증원하고 수요 지도자 홀리클럽, 여성 홀리클럽, 목회자 홀리클럽, 신학생 홀리클럽 등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한 월례 구국기도회, 오는 4월 청교도 400주년 기념 연합 포럼과 미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5월 미국을 위한 연합기도회, 9월 신학대학 연합 설교 페스티벌, 10월 다민족 연합기도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창립 17주년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미주 지역 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고 있다.

국제성시화 대회 참가, 도시 총력전도 운동, 홀리스 쉼터 지원, 동성애 관련 법안과 반기독교 법안 저지 운동 등을 2020년 사역 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날 기념예배는 최종현 장로(미주성시화 부이사장)의 사회로 백은학 장로(LA 홀리클럽 회장)가 대표 기도하고 진유철 목사의 설교 후 이종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와 민족복음화의 일원으로 시작된 성시화의 힘은 건물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자”고 전했다.

한편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

룩하게 하자”는 취지로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모델로 삼아 시작된 성시화 운동은 한국에서는 1972년故 김준곤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2003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시작된 미주성시화운동은 박희민 목사(명예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대표회장), 한기형 목사(전 상임회장)가 초창기부터 이끌었으며 교계 및 사회 지도자, 여성, 청

년으로 구성된 각각의 홀리클럽을 통해 정례 예배와 기도회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2008년 LA 다민족 성시화 대회, 2011년 11월 로즈볼 다민족 연합 기도회, 2012년 10월 크랜서 크리스천 센터 다민족 연합 기도회, 2016년 4월 아주사 나우(Azusa Now) 다민족 연합 기도회 등 대규모 기도 집회를 주도해 왔다.

김동욱 기자

# 정찬용 변호사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로 당락 결정돼”

## LA 카운티 제2지구 슈퍼바이저 출마 3월 1일 주일 투표소 방문해 선거권 행사해 달라 요청

LA 카운티 제2지구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정찬용(Jake Jeong) 변호사가 오는 3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남가주 한인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을 요청했다.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사우스 LA, 컬버시티, 가디나, 캄튼, 레녹스, 웨체스터 지역 등을 포함하는 LA 카운티 2 지구는 전통적으로 흑인 슈퍼바이저가 지역을 대표해 왔으며, 허브 웨슨 전 엘에이 시의장과, 잰 페리 전 엘에이 시의원 등 유력한 흑인 후보가 출마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겨루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아시안 후보

인 정찬용 변호사는 한인들의 결집된 투표가 있다면 당선 가능성이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3만 명의 한인 유권자가 결집하면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된 표가 절실하다”며 “오는 3월 1일(주일) 예배를 전후로 투표소에 방문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깨끗하고 바른 정치인이 되겠다”며 “저렴한 주택 10만 호를 건설해 홈리스 문제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더욱 살

기 좋은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거주지에 따른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 가까운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회나 단체에도 임시 투표소가 설치되는 등 예년에 비해 편리해졌다. 또한 선거 당일 4일 전인 2월 29일(토)부터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

LA 한인타운 내에는 동양선교회, 찰스 김 초등학교, 코헝가 초등학교, 하버드 초등학교, 월서파크 초등학교, 서울국제공원 등 6곳에서 가능하다.

김동욱 기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제2지구 선거에 출마하는 정찬용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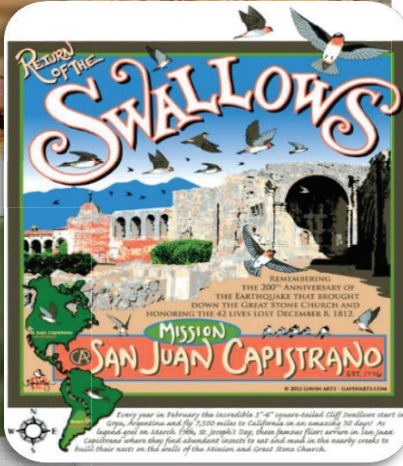
##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3월 꽃 나들이

### 플라워 필드 와 제비 축제 기차여행 편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1일

장소	시간	일정표
기독일보	08:00	-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필드	10:00	- 칼스바드 플라워 필드 도착
일식 뷔페	12:00	- 트랙터 타고 꽃 밭 투어 후 중식(일식 뷔페)
오션사이드	13:30	- 오션사이드로 이동 오션사이드 피어 힐링
산후안	14:51	- 기차 탑승 페시픽 코스트 기차여행
카피스트라노	15:29	-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도착 및 제비 축제
기독일보	17:30	- 기독일보 도착 및 해산

포함 사항 - 중식(일식 뷔페), 플라워 필드 입장료, 꽃 마차 투어 요금, 대형 버스 요금, 기차(Oceanside - San Juan Capistrano) 요금.  
불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전문 인솔자 등), 음료와 주류 일제, 여행보험



\$120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5

## “2020 사역자 컨퍼런스에서 Youth 들에게 생긴 일”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선교회에서는 매년 2월에 3박 4일로 미주 전 지역(48개 지부)에서 섬기는 간사 스텝들이 모여 예배와 훈련을 받는 사역자 컨퍼런스가 있다. 이번에도 휴스턴 힐튼호텔에서 약 800여 명이 모여 은혜중에 마쳤다. 해마다 변화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갈수록 다민족 분포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제 곧 각 지부별로 비전스쿨이 진행되고 수백 명의 단기선교팀들이 구성되고, 여름철엔 전미주 선교캠프가 열리므로 이 모임들을 준비하는 데 기도와 헌신적인 영적 준비를 위해서 사역자 컨퍼런스는 더없이 소중한 집회라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참여하였다. 교회 안에 EMYG(영어권 청년)들은 예배팀, 진행팀, 안내팀 그리고 Youth 모임을 섬겼다. Youth(중고등부)들도 따로 120명 정도 참여하였다. 오늘은 Youth의 리더십을 맡은 우리 교회 청년 간사의 간증을 기록한다.

“Youth를 담당할 간사 스텝들이 이를 먼저 현지에 가서 준비하며 기도화를 갖는데 먼저 우리 스텝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매달리며 참여할 120명의 Youth들을 기다렸다.

참석자 중에 엘에이 비전사각 장애인선교회 담임인신 C목사님이 있었다. 군대에서 시각을 잃고 30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생명력 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 군대의 찬양을 들어 본 일이 없다고 하며 크게 감동을 하였다.

우리 어린 Youth들도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 시간부터는 다른 예배실로 이동하여 Youth만이 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아이들 중 잘 섞이지 못하고 있는 몇몇 아이들이 청년간사의 눈에 띄었다. 다가가서 안녕! 잘 지 내니? 인사를 했을 때 한 아이가 “선생님!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돼요. 괜히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번에 꼭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 도와줄게 하며 같이 기도했다. 그러는 중에 울음이 터졌다. 선생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러면서 아이는 뜻밖에 고백을 했다. 선생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음란한 동영상에 빠졌고, 동성애의 마음도 있어요.

청년간사는 그 아이와 같이 울면서 회개기도를 가르쳤다. 하나님께 내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고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번 강의를 들었는데 선교회의 K 선교사가 나와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아! 하나님의 인도다. 그 강의를 듣고 Youth 자녀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총격 속에서 방황하다가 담배를 피우고, 마리화나를 한 것을 회개하는 아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이, 음란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의 고백, 믿음 생활을 잘하던 친구였는데 교회와 선교회 안에 사역만 있지 사랑은 없다고 말하며 멀어져 있던 아이들 등. 수없이 많은 회개와 기도 제목들이 기도하는 중에 막 터져 나왔다.

계속되는 강의와 예배 종족 모임 등을 통해 Youth의 어린 영혼들은 그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날이 되어 11학년 된 한 아이가 청년간사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 이번 여름에 HSM(여름방학 때 2개월간 가는 Youth 단기선교)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나요?” “why not. Sure, you can go!” 하며 그 아이를 안아 주었을 때 그 아이는 눈물을 흘렸고 그를 보던 간사도 함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을 전하며 청년간사는 내게 요청했다 “목사님! 우리 Youth들이 변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섬기고 나누는 월드서비스 USA

## 그리스도인과 신종 바이러스!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 19의 확산이 뉴스와 대화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기세가 꺾였지만 중국 당국의 미심쩍은 대처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 확산의 충격이 큼니다. 소규모 상인들, 식당들, 특히 관광에 관련된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자제되는 상황이라 여러 음악회와 발표회들이 취소되면서 문화산업의 타격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주일에 문을 닫고 방송 설교로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염병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급변 신종 코로나의 경우만 아닙니다. 근래에 각종 전염병들로 교회가 당황했습니다. 멀리는 중세 교회가 쇠락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전염병이었던 흑사병(페스트)의 창궐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흑사병에 바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수천 명이 몰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대처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미 전염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개역 개정 성경에 55회 등장합니다. 유사어 돌림병이 2회 등장하고, 같은 의미인 역병이 1회 등장합니다. 주로 구약에서 사용되지만, 중요한 신약 본문들에서도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전염병이 사용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전염병의 의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강태광 목사  
월드서비스 USA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각종 전염병과 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삼하 24:10-17). 범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징계 3종 세트가 출애굽기,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30회 정도 반복됩니다.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 도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둘째, 신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와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박한 말세의 징조가 전염병입니다(눅21:11). 고국의 소식은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단과 사 이비가 범람하고, 영혼을 미혹하는 점술이 호황입니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흥취한 음란물을 즐기고, 경치 좋은 곳마다 러브호텔이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타락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현실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파할 힘도 반대할 거룩한 영향력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전염병이 등장할 말세입니다.

셋째,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전염병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재앙으로 내리십니다. 전염병은 10가지 재앙 중 하나입니다.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성전 건축 후 기도하던 솔로몬이 역대하 6장 28에서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지점에서 전염병이 언급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 주시는 증거였습니다. 막강한 전염병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방역 전문가는 방역의 안경으로 전염병을 봅니다. 사업가는 사업가의 눈으로 전염병을 봅니다. 외교 전문가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력을 살핍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종 바이러스 사태를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를 누구의 실수나 잘못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이 사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막대기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 주시는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희생과 막대한 손실을 주는 이 신종 바이러스가 영적인 백신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최인근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 381-0081, FAX: (213) 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존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9)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 Fax (323) 643-0302  
www.aeu.edu/info@aedu.edu /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 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 527-0691 (0692) Fax: (714) 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 (대표), 515-5885 (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모세오경 세미나, 성경이 보인다!

오는 4월 29일(수)부터 5월 1일(금)까지 플로리다 템파 국제교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 세미나는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2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세미나이고 훈련 방법입니다.”

태과 성경연구원(원장 장진광 목사)은 오는 4월 29일(수)부터 5월 1일(금)까지 플로리다 태과 국제교회(담임 진제임스 목사)에서 미주 지역 목사와 선교사, 신학생을 대상으로 모세오경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강사로는 한국 삼마교회 이일성 목사(모세오경 아카데미 원장)가 나선다.

모세오경 세미나는 ▶창세기-주권 세우기 ▶출애굽기-세상을 끊는 것 ▶레위기-거룩한 예배자 ▶민수기-교회론 ▶신명기-반복하는 책이라는 다섯가지 챕터로 나누어 성도들의 신앙적 견문을 넓히고 마음을 키워 일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말씀 훈련 과정이다.

이일성 목사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은사 혹은 체험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지고 성장의 열매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성도들이 모세 오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하기를 깨닫게 될 때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평신도 교육 연구소장을 지낸 이일성 목사는 1995년 교회 개척 후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죄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성도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목사는 이후 모세 오경 세미나

지난달 30일 극동방송 주최로 목포 여담교회에서 모세 오경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일성 목사

이일성 목사가 모세오경 목회자세미나에서 순복음삼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훈련 시범을 보이고 있다.

를 통해 인생의 명확한 주권과 유  
혹의 절연, 거룩으로의 삶, 말씀으  
로 축복받은 성도와 강한 복음의 전  
파자로 살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  
고 있다.

이 묵사는 “묵회자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영적 원리가 모세오경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죄의 문제, 죄 사람의 길, 인생의 주권과 성령 충만의 중요성 등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말씀의 바른 이해와 교육으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한다.

이일성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적 견문을 넓히고 마음을 키워 주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비밀은 가정에 있다. 부모가 군사가 되면 가정 교육을 통해 명문가정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사람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전

했다.

이 목사는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된 성도를 기르는 것이 목회자의 참된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목사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는 영적 원리가 모세오경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죄의 문제, 죄 사함의 길, 인생의 주권과 성령 충만의 중요성 등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말씀의 바른 이해와 교육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생활을 분명하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세미나 초대말을 전했다.

그는 또 “모세오경 세미나의 핵심은 레위기로 성막 안에서 이뤄지는 예배의 회복”이라며 “한국 교회에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진 제임스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모세오경 세미나는 가장 확실한 성도 훈련 방법으로 미주 한인교회와 특별히 2세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 등록비(교재, 점심 포함)는 150달러이며 부부 참가자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월 29일(토)까지 접수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 (골 4:6)  
 삼마 모세오경 아카데미  
 THE PENTATEUCH ACADEMY

국민일보에 2019년, 2020년 연속 기사화 되고있는

# 모세오경 세미나

“하루를 투자하면 성경이 보인다!”

강사(SPEAKER): 삼마교회 이일성 목사(모세오경 아카데미 원장)

전 한세대학교 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수  
 전 연산신학원 교수  
 전 한국 오순절 교회협의회 회장  
 현 기독교복음 방송 Goodtv 사목  
 현 Goodtv 운영위원회 사목  
 극동방송 은혜의 동산  
 현 한국 Oral Robert University 총 동문회장  
 현 경기 북 총 연합회 부총회장  
 현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 회장  
 현 파주경목회 임원  
 동서남북 언론 정치인 성경훈련

참가대상: 목사, 선교사, 신학생 참가비용: 150불(세미나 교재, 점심 포함)  
 부부 참가시 20% 할인, 2월29일까지 접수시 20%할인

주최: 탬파성경연구원(원장 장진광목사)

후원: 삼마 모세오경 아카데미

협찬: Tampa Underground Network

(tampaunderground.com)

◆일시: 2020 년 4 월 29 일 ~ 5 월 1 일

◆장소: 탬파 국제교회

12335 University Mall Ct. Tampa, FL 33612

◆접수마감일: 3 월 15 일

◆접수처 및 연락처: 탬파 모세오경 세미나 간사

장 성 자 목사 727-247-8612

진 제임스 목사 813-808-9349

pentateuch2020@hotmail.com





# 증험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15-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증험이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체험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체험이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 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목사들이 선포한 말씀을 기대 걸고 믿어서 실천하고 기대해 봤지만 아무 증험도 없이 끝이 나고 헛수고하는 결과만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예언기도 받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의 생리는 자기 믿음의 성이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말에 솔깃해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 그것에 속하게 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잘못된 영들의 지시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아 영육간에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차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0:10-12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중략)...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행세하는 식으로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면서 가나안으로 함께 입성하지 못하는 자기대신 선지자 하나를 세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종인 그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거짓된 선포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보장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짐작으로 만들어내어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복종하여 실천하더라도 그저 헛수고로 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두 임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사라는 부왕의 대를 이어 유다의 왕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라끼리 세금 없이 교역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각 나라의 문화가 교류되면서 신앙에 혼란을 가져오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임 얻어 축복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허락하신 조건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들과 어울려 잘못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재책을 맞을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이 엄청난 대접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체의 국력은 약하지만 유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져 있으니 그 부강함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랍을 쳐부수고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사 동맹을 맺은 처지이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에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사상과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땅을 빼앗으려는 아합의 사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청컨대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귀찮게 생각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언정 그 일들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달렸음을 알고있는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아합 주변에서 서식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길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은 말을 했지만 믿기지 않아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들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니이다”하며 그를 불러 오길 원치 않는 듯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며, 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하니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내시를 시켜 데려오면서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입니다. 400명 선지자 중 수석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와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찢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말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고 말하며 아합 왕을 즐겁게 하려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왕들 앞에 왔습니다. “미가야아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리라”하고 문자 처음에는 오면서 교육받은대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바 되리이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술한 것만 말하라

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고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의 생각 속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한 말이 신빙성 없는 말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선포하길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합 왕이 죽는다는 것이고, 왕이 죽는다고 해도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투정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중략)...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 16:4-5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중략)...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아합 왕의 총애를 입고있는 입장에서 왕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길르앗 라못을 쳐부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고문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왕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면 예언하

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더욱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과 유다 군이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을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맘에 걸려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는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람 왕이 보니 왕이 앞장을 섰기에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합니다. 아람 군인들이 “이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싸우려 할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우연히도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여 빠져나와 치료받지 못하고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임수로 들려주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온전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 여호사밧 왕처럼 전투장에서 왕복을 입고 앞장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어감을 확인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 양자 깔창

##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노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게는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줄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효를 빠르게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과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PRESIDENTS' DAY

SPECIAL

SALE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Or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1-888-644-7114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작은 교회를 위한

##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일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방송(복음 채널) 방송선교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 효사랑 선교회, 제8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개최



지난해 열린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단체사진

### “나는 누구인가?” 주제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효사랑 선교회는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주제로 제8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 분야는 글짓기와 그리기 부문으로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모님을 존경한다”, “나는 코리언 아메리칸이다” 등 다양한 소주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접수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우편,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글짓기 경우 이메일 hyosarangus@gmail.com 접수도 가능하다.

효 글짓기 분량은 레터지 3 페이지(글자크기 12pt)이며, 효 그림은 크기 14"x17"로 크레파스와, 수채화, 드로잉, 아크릴 등으로 그릴 수 있다.

참가비는 20달러이며 둘째 아이부터는 10달러다. (check payable

to Hyosarangus)이며 시상은 오는 4월 25일(토) 10시에 풀러튼 장로교회(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진행되며 상금은 대상(2명) 500 달러, 최우수상(4명) 300달러, 우수상(6명) 200달러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및 상장을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OC교협, OC장로협회, 오피뱅크, 가주 교육신문 등이 후원한다.

제출 및 문의: 714-670-8004

김동욱 기자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 보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도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N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2020 세계기도일 예배 올해는 ‘짐바브웨’ 위해 기도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 회장 유화진 권사(가운데)

### 3월 7일(토) 오전 10시, 인랜드교회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고통받는 국가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남가주 예배가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에서 진행된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읽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모아 그 나라로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133주년을 맞은 올해 기도회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라는 주제로 짐바브웨 여

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했다.

예배를 준비하는 미주 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 회장 유화진 권사는 “세계기도일 예배는 초교파적인 모임으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며 “인종과 문화, 성별과 빈부, 전쟁과 분쟁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인권, 자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세계 180여 나라의 교회 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초교파 연합예배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지구 자전과 함께 24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진다.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 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현재 180개국에서 지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한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미주에서는 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미주 70여 개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미주 한인 교회 여성 연합회는 세계기도합창단(World Prayer Women's Chorale)의 단원모집을 모집한다. 합창 단원은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찬양하길 원하시는 크리스천 여성으로 세계기도일예배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김동욱 기자

## 얼바인 베델교회 인기 생활강좌 개강

### 다양한 과목 개설 3월 첫째주 개강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는 ‘봄학기 베델 생활강좌’를 3월 첫째 주부터 개강한다.

베델 생활강좌는 베델교회 교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며, 평소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종교가 다른 이들도 수강할 수 있다.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따스한 만남의 공간도 제공하는 이번 봄학기 생활강좌에서는 기초 미술, 한국화, 유화, 서예, 캘리그래피, 쿼트, 꽃꽂이, 포토샵, 일본어, 바이올린, 크로마 오토 하프, 생활 한의학, 시력검사와 안경제작, 테니스, 피크 볼, 홈 로스팅 커피강좌에 이



캘리그래피에 열중하고 있는 베델 생활강좌 수강생들

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목들이 수강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강사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기과목은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한다. 4주 코스로부터 12주 코스까지 다양하게 진

행되는 이번 강좌의 수강신청기간은 3월 1일까지이며, 베델교회 웹사이트 [www.bkc.org](http://www.bkc.org) 가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949) 288-3524 황사균 집사에게 하면 된다.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美 남침례회, 복음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좌파적 견해 반대



©미국 남침례회 윤리·종교자유위원회(ethics&religious liberty commission)

### ‘워크’(woke) 트렌드 우려하며 “복음과 성경” 강조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BC)가 소위 ‘워크’(woke) 트렌드로 기울고, 점점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복음과 성경을 강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4일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워크’는 영어 단어 ‘wake’의 과거형으로 이르바 ‘깨어났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정치적 용어로 쓰이는데, 현지 교계에선 전통적인 복음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좌파적 견해를 가진 그룹을 ‘워크 처치’(woke church) 등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종차별에 있어 ‘백인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편협한 시각이며, 복음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BC 내에서 생겨난 이 네트워크도 이런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적 침례교도’(Conservative Baptist Network)라 불리는 이 네트워크는 이날 그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SBC 내에서 복음을 다시 선언

하는 ‘뿌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경을 무엇보다 우선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나 이 네트워크가 단지 기존 흐름에 대한 불만에 따라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인터넷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루지애나 보시어 시티에 있는 제일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브라드 유코비치(Brad Jurkovich) 목사는 “우리는 SBC의 현 상황, 특히 인간의 성(性)과 성경적인 인종 간 화해, 그리고 사회주의적 정의(socialistic justice) 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틀리는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CP는 전했다.

또 유코비치 목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미궁에 빠지는 SBC를 보고도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교단을 완전히 떠나거나, 혹은 그 안에 남아서 교단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수적 침례교도 네트워크’는 바로 세 번째 선택을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불행한 종국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 다시 부흥을 경험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 복음주의 정체성 가진 美 목회자 대부분 “동성결혼 반대”



©Pixabay

###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 연구 결과 발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 중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1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라이프웨이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복음주의 개신교 목회자 중 약 8%만이 동성결혼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자신을 ‘주류 개신교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는 이들에게선 동성결혼 지지 비율이 꽤 높았다. 지난 2010년의 32%에서 2020년에는 47%로 증가했다.

교파별로 분류하면 장로교/개혁파(49%), 감리교(47%), 루터교(35%)의 목회자들은 침례교(3%) 또는 오순절교회(1%)의 목회자들보다 동성결혼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다.

이 연구는 또한 백인 목회자(27%)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회자(15%)나 다른 인종의 목회자들(6%)보다 동성결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박사 학위(27%) 또는 석사 학위(32%)를 가진 목회자가 학사 학위(9%)또는 대학 학위가 없는(6%) 목회자보다 동성결혼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 출석률이 50명 미만인 교회의 목회자(33%)가 출석률이 1백명 이상인 교회(19%)보다 동성결혼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맥코넬 대표는 “동성결혼에 대한 목회자들의 견해는 교단 전통보다 성서적 견해와 더 큰 관련이 있다”면서 “복음주의의 특징은 변화하는 문화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신념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권위다.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렌즈를 통해 동성결혼을 인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강혜진 기자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상집회 오후 7:30(월,수,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론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교육부 예배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 주 수  
금요 말씀과 삶 공부  
토요일침례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7:00  
오전 7:00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사순절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한양사적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복음화하며, 이만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den 교차)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교차로 북동쪽 제2차)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6:00(토)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7:00

성인 EOM예배 오전 12:30  
한양청년예배 오전 12:30  
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한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원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작중 성경공부 오후 1:00  
종교기도 (목) 오후 1:00  
종교기도 (목)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8가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음-4차)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노영호**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초등부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에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에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매매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아부, 유아,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 주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지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금요일예배 오전 6:30(화-금)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 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차부,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학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이에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장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새움 받아 함께 할거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이종천** 담임목사

**뉴스ong교회**  
새 시대를 책임자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관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EM/성경공부 오후 7:3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립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나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ventur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여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30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8514 Rosas St., Northridge, CA 91328  
T. (818)363-5887

**MP채플**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8월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00  
9월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00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626) 837-9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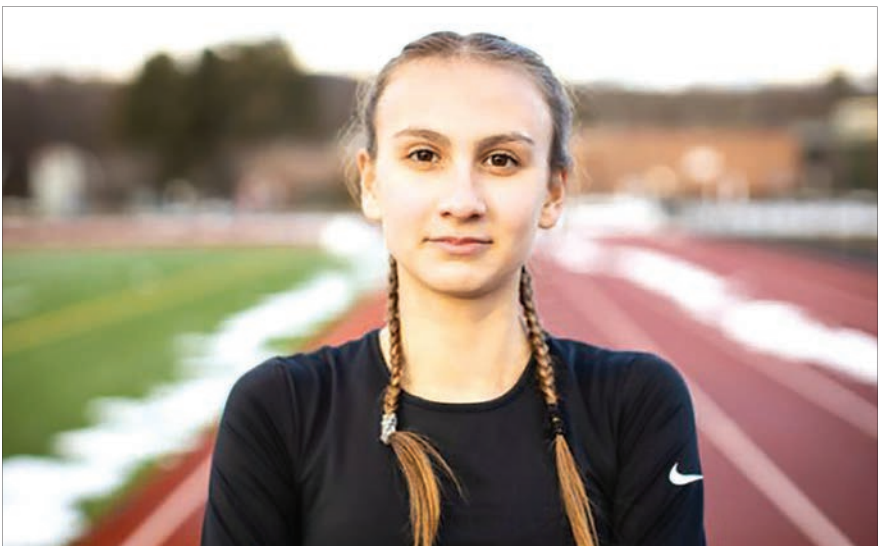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트랜스젠더 선수 제치고  
주 대회 우승한 美 여학생



첼시 미첼 선수. ©자유수호연맹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고등학생이 주에서 주최하는 챔피언십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이기고 우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9일 보도했다. 캔튼고등학교 학생인 첼시 미첼은 S급 55m 단거리 경기에서 7.18초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블룸필드고등학교의 트랜스젠더 여학생인 테리 밀러는 7.20초로 2위를 기록했다. 미첼은 우승 후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이젠 경주이고 달리기일 뿐이다. 나에게 집중하려고 했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부터 코네티컷주는 트랜스젠더 선수를 여자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다. 2019년부터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코네티컷을 비롯해 17개 주로 늘었다. 테리 밀러와 알드라야 이어우드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해 왔으며, 트랜스젠더 수술까지 받고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 AP 통신은 이들은 2017년 이후 코네티컷주 실

내·외 단거리 경기에 출전해 총 15차례 우승했다고 전했다. 이에 코네티컷주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여자 육상 선수 셸리나 소울, 첼시 미첼, 알라나 스미스 등은 지난 13일 “교육 당국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선수들에게 여자 선수들과 경쟁하도록 허용해 여자 선수들이 경기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은 1972년 여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타이틀 나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테리 밀러는 “나는 내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우승하고, 공동체를 발견하며,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운동을 한다. 난 여성이며 경기에 출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변호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타이틀 나인만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마블 새 영화에  
‘양성애자’ 스파이더맨 등장 논란



영화 스파이더맨.

“아이들 대상으로 한 TV·영화에  
성소수자 급증” 비판 목소리

마블 히어로물인 스파이더맨의 일부 판권을 소유 중인 소니픽처스(이하 소니)가, 양성애자 스파이더맨이 등장하는 영화를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블로그 ‘We Got This Covered’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니가 실사 영화 ‘스파이더-벌스’(Spider-Verse)를 제작 중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 홀랜드가 이전 버전의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필드를 만나 뽀롱뽀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제작팀은 특히 가필드 버전의 스파이더맨을 양성애자로 묘사하고, 그에게 남자친구를 만들어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가장 최근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은 홀랜드는 작년 선데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스파이더맨이 동성애자로 등장하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냐?”는 질문에 “이 세상은 백인 남성 이성애자들 만큼 단순하지 않다. 한 가지 유형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블 스튜디오 케빈 파이가 대표인 영화에 공개적으로 트랜스젠더 슈퍼 히어로를 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열린 뉴욕필름아카데미에 참석한 파이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더 많

은 성소수자들, 특별히 트랜스젠더를 등장 인물로 소개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물론 있다. 우리가 현재 촬영 중인 영화에 곧 등장한다”고 답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아이들을 위한 쇼 프로그램 ‘굿 럭 찰리’(Good Luck Charlie)에서 처음으로 성인 동성커플을 등장시킨 디즈니는, 작년 7월 디즈니 채널에서 방영된 ‘앤디 맥’(Andy Mack) 시즌3에서 10대들의 동성애를 전면으로 묘사해 논란이 됐다. 디즈니는 TV 프로그램이나 2018년 상영된 영화 ‘미녀와 야수’ ‘돈 맥 스투핀스’ 등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를 홍보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7년 방영된 TV 프로그램 ‘Star vs. the Forces of Evil’에는 처음으로 ‘남자 공주’를 등장시켰고, 동성 간 키스신을 선보여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디즈니나 마블 영화의 주된 대상이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아직 가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시기의 아이들에게 동성애 아젠다를 선전하고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는 “디즈니의 동성애 아젠다 지지는 비도덕적이며, 죄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혜진 기자



## 김형석 교수 “국민 대다수 대통령 정책 발언 믿지 않아”

칼럼 ‘문재인 정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 동아일보에 게재

100세를 넘긴 기독교인 철학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권,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14일 동아일보에 게재했다.

김형석 교수는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30년간 집권하겠다고 말했다. 그 뜻은 가능하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는 정권이 소망스럽다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거기에는 우리는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무의식적 저의가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작년 11월 청와대 책임자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업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제거’라고 답했다. 잘못된 것을 묻는 물음에는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국민들은 역시 운동권 출신의 거만스러운 자세라고 느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진보 정치는 사라지고 좌파 정권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믿고 싶었다. 촛불 혁명의 뜻을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고, 국민의 복지와 안정은 물론 분열됐던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생각 있는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의 정책 발언을 믿지 않는다.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내용들과 상반되는 정치를 해 왔고, 앞으로도 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석 교수는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청보다, 정권을 유지·연장하려는 정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부는 남긴 바가 있어 성공했으나, 정권 유지를 위한 정부는 실패는 물론이고 역사의 불행과 적폐를 남겼다는 엄연한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늦기 전에 정치 방향을 시정하든가, 주변 주종자들을 사회지도층으로 교체하기 바랐던 이유”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지금 유례가 없는 국론과 국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적폐 청산도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네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사회 지도층의 대립을 가중시켰다”며 “이 분열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애국적 목적을 위한 대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정의라는 투쟁논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원전 문제나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보에 관해 누구도

진실을 모른다. 노사는 싸움의 도장이 아니다. 협력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노조 없이 성장한 기업체가 있다면, 노사 투쟁 없는 기업체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며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폐습은 바른 길도 아니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다. 국제 운동 선수를 키우듯 우수 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 문제에 관해선 “정권 이념에 맞추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치 권력이 개입하면 과거 군정이나 권력 국가로 되돌아간다. 공산 중국의 선택과 같아진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자율적 선택과 노력에 의한 질서가 창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법치 정책을 권력구조에 맞추기 위해, 윤리 가치와 질서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간단하다.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과 선한 사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인간애의 길을 보장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폐쇄적인 진보보다 열린 보수를 원하는 것은 현 정권의 잘못된 선택과 정책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미국에 ‘NO’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 ‘NO’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북한 동포를 위하여 통일을 원한다면, 김정인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신념도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 모두의 존엄성을 위한 지도자의 의무”라며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과 신념은 들어 본 기억이 없을 정도”라고 한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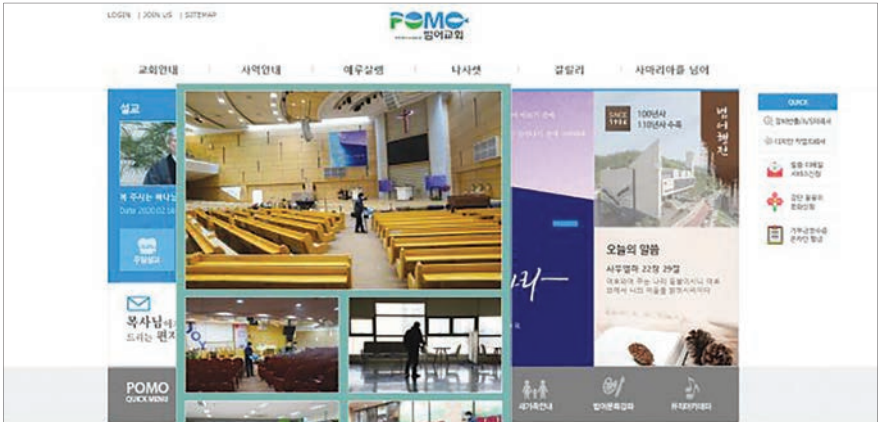
김형석 교수는 “임기 5년 동안 주어진 과업은 제한적이겠으나,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방향을 바꾼다면 그 폐해는 너무 심각해진다”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멀리하고 남은 임기까지 정권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권이 그러했듯 잘못된 진보 정부는 남기는 바 없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웅 기자



김형석 교수.

## 신천지 신도 감염 소식에... 대구 지역 교회들, 방역 활동 나서



대구 범어교회 홈페이지. 방역 활동을 소개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신천지(이만희 교주) 대구교회 신도가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15명을 감염시키면서, 대구·경북 지역 교회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회들은 SNS 등을 통해 긴급히 주중 모임 취소를 알리고 주일예배에 대비한 방역 활동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 푸른초장교회(담임 임종구 목사)는 SNS를 통해 “이번 주 19-22일 주중 예배(수요·새벽·금요 예배)는 쉰다. 공공도서관과 카페 해본도 운영을 중단하고, 전문방역팀에 의뢰해 예비방역을 실시한다”며 “당회는 코로나 사태에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렇게 결정했다. 이동과 모임을 금하고 개인 위생과 묵상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급적 이동과 모임, 방문 등 실외 활동 산성교회(담임 황원하 목사)도 19일 ‘2주 전부터 마스크 착용, 약속하지 않

고 목례로 대체, 손 세정제 비치 등을 시행 중이고, 오늘부터는 주일 전까지 모든 모임을 갖지 않고 건물 전체를 방역 소독할 계획”이라며 “주일 일정에 대해서도 당회원들과 긴밀히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대구를 무작정 욕하거나, 대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됐거나, 하나님이 대구를 심판하셨다는 등으로 말씀하지 말아달라”며 “대구에서 일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대구제일교회(담임 박창운 목사)도 이미 학부모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취소한 바 있다.

이대웅 기자

### 사우스베 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중·고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중·고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중·고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성**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단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단기)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여·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중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중·고부 오전 10:00  
성가대·찬양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 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믿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whachurch.org

1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3부월간예배 오후 1:30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웅**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학교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진다고 오묘하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11: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중·고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매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인태평양신학교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중·고·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지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으로 영생을 살리는 해방종교 ALL IN JESUS 예수께 오고 있을 가는 복수종교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중·고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중·고·예배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신인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김일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안성복**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8부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 강령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정기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r.church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세대와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김인철**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최성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임경남**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박 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담임목사와 부목사, 서로 직위 바꾸기로해 화제

익산 꿈이있는교회 노지훈-조정환 목사 이야기



13일까지 담임목사였던 '익산 꿈이있는교회' 노지훈 목사(좌)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새롭게 청빙된 조정환 목사(우). 조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정환 목사 페이스북

“담임목사인 저는 오늘부터 부목사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서로 직위를 바꾸기로 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익산 꿈이있는교회에서 부교역자로 13년간 섬겼다는 조정환 목사는,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담임목사와 부목사 역할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교회 최초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교체되는 특별한 경험”을 소개했다.

노지훈 목사가 2005년 12월 서울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익산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6개월 뒤인 2006년 6월 조정환 목사가 처음 익산으로 내려왔다. 조목사는 “(하나님께서 제게) 낮은 땅 익산으로 내려와 개척을 하신 노 목사님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부교역자로 꿈이있는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지 모른다. 꿈이있는교회를 섬기는 동안 참 많은 성장과 성숙이 제 삶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우 35살의 젊은 나이에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꿈이있는교회에서 사역해 오신 노 목사님은 CHE 선교전략으로 도심의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담임목사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부목사의 자리로 역할을 바꾸자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습과 권력다툼을 일삼아 온 한국교회를 생각하시고 제안하신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목사는 “한국교회 최초로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교체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며 “저는 성도들의 만장일치로 청빙을 받고 아직 연소함으로 배워야 할 목회의 경험들을 채우기 위해 모범이 되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훈련 과정들을 연구하는 동안, 저의 빈 자리를 부목사로 내려오신 노 목사님께서 얼마 동안 섬겨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도들에게 공지하고 준비하였지만,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운 성도들을 (노 목사님이) 끝까지 돌봐주시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후임목사님을 돕고 세우도록 설득해 주시다가 조용히 떠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저의 청빙을 찬성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 목사님은) 5년만 더 계시면 원로목사가 되시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익산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다시 비전을 따라 움직이신다. 부목사로 역할을 바꾸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도 일체의 사례비도 받지 않으시고 떠나실 때 퇴직금도 전혀 받지 않으신다고 설교 시간 선포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조목사는 “청년시절 전도사 때도 목사 안수를 받은 부목사 시절에도 교역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유럽과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며 “전도사 시절 꿈이있는교회에서 유럽여행도 할 수 있게 보내주시고, 담임목사 청빙받기 전에 성지순례는 꼭 다녀와야 한다고

하셔서 얼마 전 여행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방만한 가이사라 지역에서 목상할 기회가 있었다. 바울이 이 장소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로마,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했던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무릎으로 몸부림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꿈이있는교회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귀한 부름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록, 충성을 다하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떠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글을 맺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글에는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런 멋진 사역을 시작하신 두 분의 목사님을 응원한다”는 격려의 댓글이 연이었다.

조목사는 본지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동광교회 전도사 시절부터 노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인격적·사역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익산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면서 먹고 자는 일상적인 것들까지 함께하는 동역의 기간 동안,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견문을 넓혀주시기 위해 정말 많은 힘을 써 주셨다”고 했다.

조목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특히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힘 있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설교 훈련이었다고 전했다. 설교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피드백을 주고, 각종 설교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조목사는 2017년 예장 합동 총회가 종교개혁500주년을 맞아 교단 차원에서 개최한 전국신학생 설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익산 사역 초기 의무소방으로 군생활을 하는 동안 주말에만 사역할 수 있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전도사 시절과 담임목사 청빙 직전 견문을 넓혀야 한다며 유럽여행과 성지순례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도 “당시 얼마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치열한 상황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14일 노지훈 목사의 페이스북에는 ‘새 직장(익산 꿈이있는교회 부목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스스로 부목사의 자리로 내려온 노목사가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건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선교전략) 사역이다. 지역사회회 개발과 전도, 양육, 교회 개척을 통합한 전인적인 선교 전략을 추구한다.

이 외에도 노목사는 연예인 사역단체 미메이(MEI)의 지도목사, 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현석)의 기도회 인도 등으로 기독교 연예인들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도목사, 익산시 시청직장선교회 지도목사 등으로 섬기며 활발한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경호 기자



# 청교도 이민 400주년 | 기독교 영성 회복의 길 <제4편>



플리머스에서 청교도 추수감사절

##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1.)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플리머스 식민지 사람들( 분리주의자들 )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한 승객과 선원들 중에서 까다로운 청교도들 41명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을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라고 부른다. 그들은 본국이나 영국의 국왕과 상관없이 a) 자체적인 민간 정치체제를 만들 것, b) 식민지 사정에 잘 맞으며 식민지를 위한 법률과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고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맡았던 인물로는 존 카버와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있다. 우리는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초기 식민지 개척 당시를 살펴보면,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추수 감사절의 유래

배에서 내린 청교도들은 존 카버를 초대 정착총장으로 세우고, 7채의 집을 짓고 신대륙에 정착하고자 시도하였다. 첫해 겨울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고, 봄이 왔다.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파종하였으나 실패하고, 가을이 닥쳤다. 이때 아브나기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고, 스쿠안토라는 이름의 인디언이 통역을 해주었다. 그 봄에 총장인 존 카버가 죽자,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39세의 나이에 총장이 되었다. 가족들이 죽었고, 가을이 되어도 궁핍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사냥과 채집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축제를 벌였다.

주장 마사소잇과 약 90명의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 인디언들은 사슴을 여러 마리 사냥해 와서 모두가 즐기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이다.

### \*공복으로서의 봉사 정신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듬해(1622년)에 다시 플리머스의 주지사로 선출되었고, 이후로 31년 주지사로 선출되어 33년 동안 공직을 수행했다. 왜냐하면 브래드포드야말로 참으로 식민지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켜주며, 외적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브래드포드가 식민지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싫어하여 급료를 받지 않고 일하자,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의 피에 흐르는 봉사정신은 어느 날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브래드포드는 결코 자기에 주어지지 않은 공직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1630년에 영국 추밀원이 뉴잉글랜드의 와익(Warwick) 지역 땅의 불하권을 브래드포드 개인에게 주었지만, 브래드포드는 훈자의 이익을 삼지 않고, 이를 이민자들과 함께 분배하였다. 브래드포드의 재산은 죽을 때까지 집 한 채와 작은 농장이 전부였다. 이러한 청렴결백은 미국의 정치가들의 모범이 되었고, 후대의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었다.

###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

브래드포드와 그 외의 플리머스 이민자들은 163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인 원칙>(General Fundamentals)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뉴 플리머스의 동료들인 우리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영국 정부의 자유민으로 법령을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고 설립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어떤 법령이나 부칙, 법 또는 규칙도 현재나 미래에 우리를 향해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고, 자유민이나 동료들의 모임 또는 그들의 법적인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지거나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 헌법의 기초로 연결되었다.

2.) 존 윈슬롭과 뉴잉글랜드(비분리주의자들)

1630년 3월 윈슬롭과 일행은 모두 17척의 배로 영국의 사우스햄턴에 모였다. 존 코튼 목사의 환송 설교가 있었고, 모두 신대륙을 향하여 떠났다. 윈슬롭은 항해 중에 행한 설교에서 모든 이가 우러러 보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자고 역설하였다. 이민의 목적은 첫째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둘째로 성경 말씀에 인도되는 거룩한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 \*신정 정치사상

존 윈슬롭은 신대륙에 도착한 직후에 자유민들을 소집하여, 뉴잉글랜드의 정부에 관하여 상의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참정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당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지주나 남자에게 참정권을 주었으나, 식민지에서는 교회 회원에게만 참정권을 주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교회 회원이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회심 체험을 한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했다. 이런 교회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이러한 정치 제도는 도전을 받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헌법과 건국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을 수직적인 계급 보다는 교회의 회중을 중심으로 하는 회중 교회 제도를 확립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가장 지대한 공헌은, 한 마디로 “현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장 빛나는 국가를 세웠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들의 결정적인 공헌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확립한 것이다. 재산이나 계급보다도 법이 우위에 서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3.) 청교도들은 교육을 중시하여 이민 초기부터 학교를 만들어 교육에 힘썼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대개가 신학교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아이비 리그라고 부르는 동부의 명문 대학들이 그것들이다. 하바드(1638), 예일(1701), 프린스턴(1746) 그리고 다트머스(1754) 등이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들이다.

### \*참고 자료

- 최상준, 교회사 (L.A., 베데스다 대학교, 2009)
-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 마크 A. 놀, 최재건 옮김, 미국 캐나다 기독교 역사 (서울, CLC, 2005)



박종승 목사  
예심교회 동역목사  
WW Ministry 사역

##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기념

# 성경테마여행

###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일보와 WW Ministry에서는 미국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의 역사관광지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한 역사를 볼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마을들을 돌아보며 청교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날짜 : 5월 12일 / 5월 13일 - 선착순모집**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79**  
+ 항공요금

**\$519**  
+ 항공요금

**\$499**  
+ 항공요금

### 노아의 방주를 타다 !!

**날짜 : 3월 10일 / 4월 14일 / 5월 12일 / 9월 15일 / 10월 13일 / 11월 10일**

일정 : 청조박물관 견학(천지창조, 예수님의 사역)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현대의 생활모습을 거부하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인 아미쉬 마을  
클리프트 주립공원을 아름다운 경치 감상  
시카고 시내 관광

###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날짜 : 9월 22일 / 10월 20일 / 11월 3일**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 필라델피아를 가다! 말씀과 역사를 따라서

**날짜 : 4월 21일 / 5월 19일 / 6월 9일 / 9월 8일 / 10월 6일 / 11월 10일**

일정 : 레위기기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성막 체험  
기독교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2000석 규모의 성경 뮤지컬  
미국 최대의 아미쉬 마을 방문  
펜실베이니아주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민음의 유산으로 세워진 프린스턴 방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필라델피아 역사지구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WW Ministy, Bliss Travel

(714)681-6356, (213)434-1170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li> <li>■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li> </ul>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척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학생수시모집**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두려움을 다스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려움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나 염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다스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감정의 뿌리는 생  
각에 있습니다. 욕이 고난 중에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  
고”(욥 3:25상).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주의해 읽어 보  
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  
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  
각의 결과라”(렘 6:19상). 생각  
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까닭  
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

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렵게 만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맹(勇猛)을 발하게 됩니다(수 1:9; 단 11:32).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넷째, 예상되는 문제에 잘 대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잘 준비하게 되면 안심하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길은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독감에 걸렸을 경우는

## 내려놓음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우리는 종종 막중한 책임감을 깨닫고 내 어깨에 무게를 느낄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중함”이란 남들이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고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면서 이 단어를 마음속에 세겨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책임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여오고 그리고 억누름을 경험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길 “무거운 인생의 멍애를 짊어지고 길을 떠나가다 날이 저물어 발을 동동 구르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는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에 원인이 주께 맡기지 못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려놓음의 영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집착해서 이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중 하나가 바로 ‘집착’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혜는 바로 내려놓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자유함과 평강이 찾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다시 평강가운데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려놓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려놓음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적인 의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인 됨” 즉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욕심, 그리고 내 뜻과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삶의 결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인물들을 사용하시기 전 항상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질문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 즉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부로 살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함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제자들과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럴 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내려놓음(Set Down)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와같이 내려놓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게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에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답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렵게 만드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모세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 나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낚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피신했습니다(출 2:14-15).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수 1:6, 7, 9). 엘리야는 이세벨의 공격이 두려워 도피합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렘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원했습니다(왕상 19:1-4).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고전 2:3).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을 인정할 때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을 노려보면서 그 정체를 파악하십시오. 두려움을

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은 두려운 생각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심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딤후 1:7).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지가 두려움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올바른 지식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요 8:32).

셋째,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합니다(히 10:35; 엡 3:12). 의심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한 믿을

쉬어야 합니다. 피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을 섭취하십시오. 독감이 심할 경우에는 바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으십시오. 문제 해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담히 살아가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강렬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두려움을 다스리십시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18상)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처럼 강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사명의식은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행 20:24). 그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두려움은 당황합니다. 두려움은 무력해집니다. 부디 올바른 지식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사명감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를 빙니다.

+ +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더 넓은 곳으로

# 확장기념 플로어

# 30%

세일



수술 않고 해결합니다! 척추통증·좌골신경통

## 2020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 하루 5분

허리 통증, 손발저림 통증,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료 체험** 하러 오세요

“미 전역 딜러 모집”

자기방어용 신변보호장치  
**전기충격기!!!**

“지난 20년간 한인타운 스테디셀러”

## 후지미 마사지체어 최초 플로어 세일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는 마사지 체어  
Massagechairtechnicians.com에서  
2019년 미국 내 No.3

\*Fujimi.us의 GT 700 massagechair LOLC Edition 플로어 전시품에 한함.



~~\$10,500~~  
**\$5,900**  
TAX 및  
배달료 포함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0-8382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유관순 서거 100주년기념 애국다큐영화

# 유관순과 8호감방

- 영어자막제공으로 영어권과 2세들에게도 큰 역사적 교훈을 줄 것입니다 -



2020년 3.1운동 101주년과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알리고 전하고, 미주내의 교회들과 각 기관/ 단체모임 등에서 본 영화의 관람을 원하시면 공동제작자인 '기드온동족선교회 (GBMW)'로부터 자세한 상영 안내(아래 연락처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기드온동족선교회**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 코로나바이러스와 독감 극복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즉 우한폐렴은 폐까지 깊숙이 감염이 퍼져 후유증으로 폐의 섬유화를 만들어 부들부들한 폐를 딱딱하게 하여 숨쉬기가 힘들어 집니다. 평생 후유증으로 남고 결국 한번 걸리면 평생 고통스러운 폐 질환을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높여서 스스로 치료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박테리아는 보통 마이크로미터 (1000 분의 1mm)의 크기로 몸속에 침투할 수 있으나 세포속으로는 침투할 수 없는데 비해 바이러스는 이보다 훨씬 작은 나노미터(nm,100 만분의 1mm)크기로 세포 핵 속의 유전자 속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로서 스스로 살아가면서 번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스스로 생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리보솜과 같은 기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 낼 수 없으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온전히 생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고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중에서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피부에 붙으면 5 분정도, 티슈종이에서는 15분정도,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이를 정도 살 수 있으며 점액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침투하여 발병한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사스(SARS), 메르스(MERS)도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며 계속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로 변형됩니다.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최상화 시켜 유전자 자체가 바이러스를 격퇴시키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고 치료법입니다. 지구상의 어떠한 바이러스도 소금물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금물속에서는 즉시 터져 죽기 때문입니다.



1. **바하천일염** (KOSHERMINERALSEASALT.COM)은 간수 0% 중금속 0%인 미네랄 천일염으로 건강 유지 및 회복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데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OECD 국가로서 암환자 500만명 당뇨병환자 700만명 고혈압환자 1,000만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지천인 나라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나라에서 아직도 저염식을 강조하다보니 인체에 소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염식으로 인해 암이나 당뇨 큰 질환 등이 늘고 병명도 모르는 희귀한 질환들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2500미리 이상 물을 마셔야 하고 소금은 반드시 80여가지 이상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으로 25그램 이상 먹어야 체내염도 0.9%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참고: 오염된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 황사 등이 섞여 만들어진 천일염은 간수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심지어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간수는 잘 알다시피 두부를 만들 때 흠어진 물질들을 뭉치게 하는 기능이 있어 우리 혈관속에 간수가 들어가면 혈전, 단백질, 콜레스테롤 등을 뭉치게 하여 혈전(피떡)이 생성되며 이에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근이 괴사하게 됩니다. 심근 경색의 주 증상은 흉통입니다. 소금에서 나오는 간수로 생긴 결과로 혈전이 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 돌연사 원인의 80~90%를 차지합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생기는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높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50% 정도가 사망하고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10% 정도나 됩니다. 그동안 간수가 있는 천일염을 드셨다면 즉시 코셔 미네랄 천일염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막힌 혈관을 청소해야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간수를 받아 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한국사람들에게 혈관질환이 많은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천일염을 구입하면 창고에 두고 밑부분에 그릇을 대고 소금에서 떨어지는 간수를 4~5 년간 빠지게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간수로 두부를 만들고 민가에서는 자살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간수를 마시면 피가 굳어져서 죽게 됩니다. 순수한 우리말에 “○○씨가 뉘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피가 되어져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 코셔 천일염 만들어지는 과정 및 장점

코셔 천일염은 간수가 0%로 유명합니다. 일반 천일염은 5 일정도만에 소금이 완성되지만 코셔 천일염은 최고의 염도와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인 후 1 년동안은 진흙 뿔 속에 두어 염도를 높이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들은 진흙 뿔 속에 가라앉게 하며 염도를 높인 바닷물을 정수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년차부터는 강수량 5%밖에 안되는 염전에서 태양 빛과 바람 만으로 3 년에서 5 년간 천연 소금을 만듭니다. 코셔 소금은 물을 만나면 분자분해를 일으켜서 몸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죽이고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소금은 특히 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며 소금 없이는 물 한방울도 나올 수 없습니다. 평소 의사들은 심겁게 먹으라고 하지만 응급실로 긴급하게 실려온 환자들에게 링거에 식염수를 넣어줍니다. 응급실에서 넣는 기초 수액은 환자의 혈관 확보를 위해서 입니다. 응급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 혈관이 쪼그라들어서 혈관 주사를 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연탄가스를 마시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동치미 국물(소금물)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바하천일염은 순도가 최소 98%로서 짠맛 조절에 가장 적합합니다. 바하 퍼시픽 청정 지역으로 선정된 바하만 지역으로 오랜 숙성을 통해 소금 결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적은 양으로도 짠 맛 기호를 충족시킬 \*100 세 시대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건강을 생각합시다!!

암염이나 정제염은 염화 나트륨(NACL)으로서 미네랄이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의사들의 이론은 소금은 많이 먹지 말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0.85%의 소금 물입니다. 이 링거가 0.9%의 소금물인 것입니다. 0.9%의 식염수가 혈관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우선 사람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무지한 판료들은 천일염을 비위생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미국 의사 월렉이 쓴 책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을 보면 천일염을 먹었더니 환자들이 약을 끊었다는 임상 실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입니다. 인체 속에 염도가 부족하면 몸이 썩습니다. 즉 부패합니다. 부패하는 현상은 어떤 것인가? 바로 각종 염증, 아토피, 무좀 등의 세균 번식

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세균성입니다. 그나마 먹는 소금이 천일염일 아니라 맛소금, 꽃소금 등 정제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몸이 부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본적이 있는지요? 온몸이 홍해지고 진물이 나는 등 몸 속에 염도가 부족하여 사람의 몸이 부패하고 있는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물질은 소금과 알코올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사람의 몸은 무엇 인가를 요구합니다. 이때 현대인들의 특징은 바로 설탕을 좋아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설탕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나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다. 몸에 염증이 많다는 것은 곧 부패했다는 뜻이며 한글로는 곰팡이, 영어로는 바이러스 더 쉬운 말로는 썩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 “천일염은 현대인의 필수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염을 퇴치하시고 우리 코셔 천일염으로 새롭게 바꾸어야 할때 입니다.

2. **바하함초**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어 수많은 기적을 만들며 건강의 역사를 지켜온 바다의 산삼입니다. 특히 폐의 섬유화를(딱딱함) 막아주고 혈관을 청소하여 우리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슈퍼푸드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함초를 바다의 산삼, 중국에서는 신초 또는 장수초로 불리는 신비의 바하함초를 소개합니다.

3. 각종 암, 혈관 청소, 당뇨, 숙변제거 및 변비 등의 치료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최고 효과를 보이며 특히, 폐와 간 건강을 위하여 **햄프함초환**을 소개 합니다. \*햄프함초환은 독특한 능력으로 위와 대장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즉시 사멸 할 수 있습니다. \*폐와 간을 보호하고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햄프함초환을 강력 추천합니다.

www.HempBioUSA.com



4.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료예방에 신의 선물 **햄프플러스**를 강력 추천합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Hemp oil & CBD 가 치매 예방 및 파킨슨 병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매는 본인 및 가족에게도 큰 시련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CBD 는 침착 된 아밀로이드를 성공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하여 노년을 건강하게 즐겁게 해 드립니다!!

www.TheHempPlus.com

코로나바이러스는 소금물에 즉사하는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인사회건강을 위하여 바하천일염 (코셔소금)을 1인당 1봉지(100g)씩 2/29(토) 오후 3시부터 선착순 500분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립니다.

(주의사항: 본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 보조 기능식품입니다.)

E.U.M Hemp Cafe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소매 판매합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 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앨범, 주일학교, 교회학교, 마그네틱 메모, 목회자료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물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경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종종(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홑꺼머지,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땀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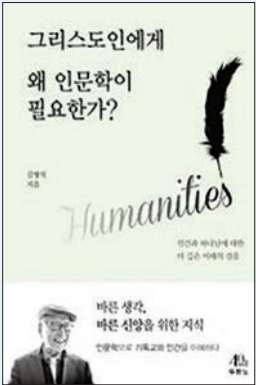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트모아)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신학과 인문학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김형석  
두란노 | 252쪽

바른 생각,  
바른 신앙을  
위한 지식

인문학으로  
기독교와 인간을  
이해하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특히 종교 지도자일수록 동서양을 넘나들며 인류사에 영향을 준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한다.

목사가 <논어>도 안 읽었다면 지성인으로서 결격자라고 까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문학 열풍, 교회 안에서만 예외 인문학을 인본주의로 오해하기에 청교도, 인간 이해 중시해서 인문학 공부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인문학 열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민주화 시대를 지내온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는 단계에 필요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 다음 단계는 고고학과 인류학이다.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한국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부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인문학 열풍이 불고, 인문학에 대한 공부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반응이 시큰둥하다.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더 그렇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문학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인문학을 ‘인본주의’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신본주의’의 삶과 ‘인본주의’의 삶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문학은 ‘인본주의’가 아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모리모토 안리 교수가 쓴 ‘반지성주의’라는 책에 보면 청교도들이 목사를 교육하는 과정이 나와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전신은 신학대학이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

학교도 초등학교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을 먼저 세웠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학위 취득과정은 교양학 학사, 교양학 석사, 신학 학사, 신학 박사였다.

철저한 신앙교육을 강조하는 청교도들이 신학 학사를 하기 전에 교양학 석사까지 공부를 시켰다. 왜 청교도들이 인문학 공부를 먼저 시켰겠는가? 인간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 알아가는 것

앞서 언급했지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김형석 교수가 발간했다.

저자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다.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인 저자는 철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제자를 길러냈다. 평생 동안 학문 연구와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저자는 10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계속해서 방송과 강연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특히 사회의 정신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인문학에 관심에 없는 것에 대해 더욱더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저자는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인문학은 인간과 역사에 나타나는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과학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사회과학이 인간의 사회적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간 자체를 연구하며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어령 교수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 했다. 인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神)도 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다.

인문학, 오래 전부터 신학과 공존 신학이 인문학과 무관? 어불성설 인문학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

철학과 종교의 근본적 과제는 인간 존재와 인간다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절대자로서의 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래 전부터 인문학은 신학과 공존해 왔다. 앞으로도 당연히 공존해야 한다.

칼빈의 ‘로마서 5장 2절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현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감히 영광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김용규 작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재구성했다. “현재를 사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인문학 지식이 없고, 다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속적이고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서, 한 손에는 신문’을 들려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서 한재욱 목사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이 둘은 동행할 때 온전해진다. 신학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간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신학이 인간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일 것이다.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는 사실은 형제인 것이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만 한다면, ‘그들만의 잘난 이야기’가 된다. 반면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도 없이 땅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성도가 있다면 그냥 ‘속물’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재욱 목사는 ‘인문학은 명답이고 성경은 정답’이라고 말한다.

<설교는 인문학이다>라는 책에서 김도인 목사는 설교가 인문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중세 시대는 영적인 요소만으로 설득이 충분했다. 하지만 문화가 세상을 주도하는 21세기는 영적인 요소만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턱없이 힘들다. 현대인들에게 다가가려면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 표현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목사님이 세상 너무 모른다? 인문학

공부 부족 그리스도인, 세상의 빛과 소금... 교회 바깥으로 만물 끌어안아도 생기는 틈, 하나님만이 메꾼다

성도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한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목사가 인문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청중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못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다. 청중을 이해하고 청중에 들려지는 설교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인문학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하는 학문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학문이다.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지, ‘교회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한다.

이어령 교수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인간이 만물을 끌어안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틈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 간격은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다고 했다.

인문학은 한재욱 목사 말대로 인간에게 명답은 될 수 있어도, 정답은 제공해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인문학이 줄 수 없는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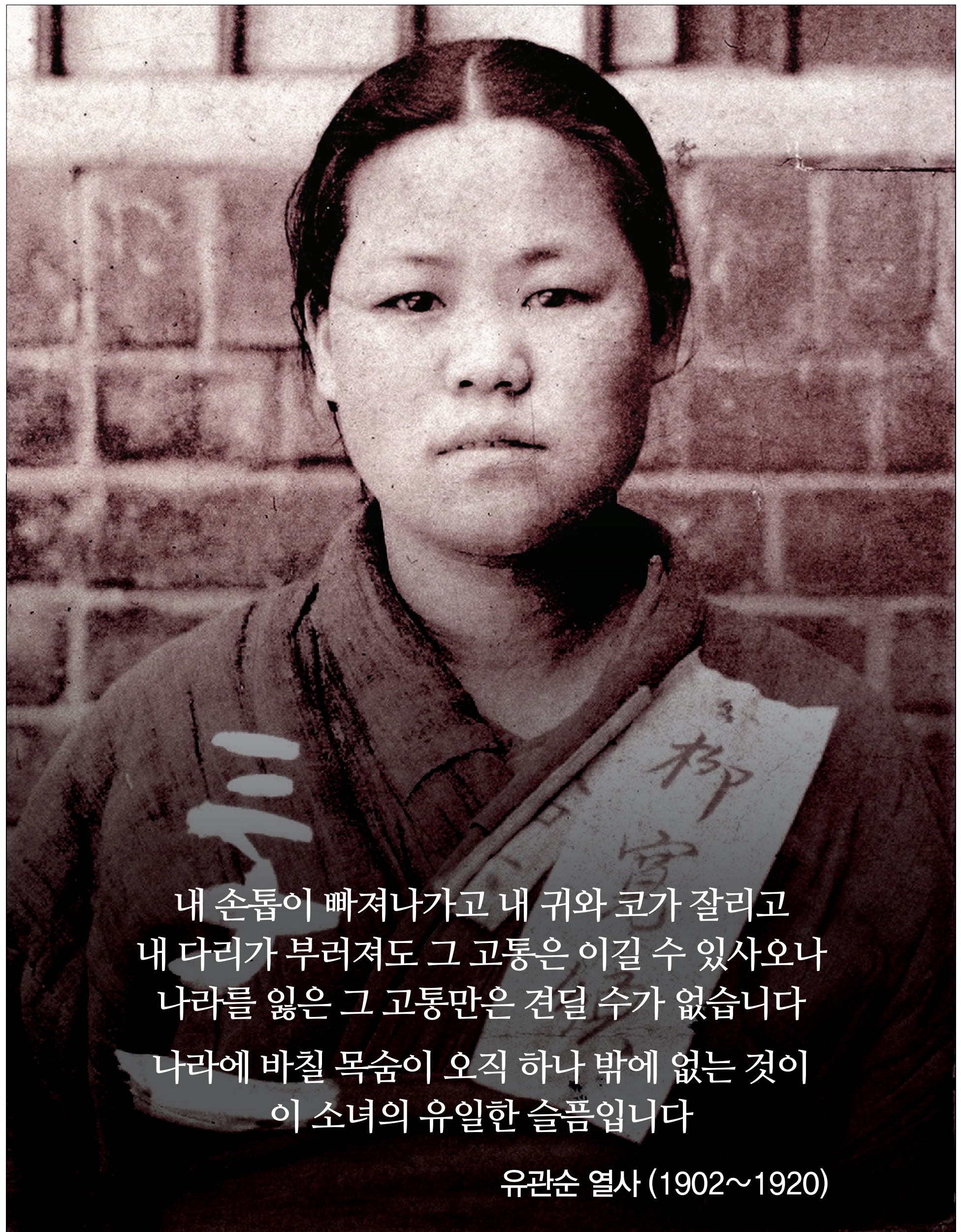
TOPMEDIAUSA Custom Marketing Solutions For Your Business

GOOD FRIENDS FOR YOUR CHURCH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 (1902~1920)

## 삼일절이 다가옵니다

잔악한 일제에 맞서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우리 선조들 -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지금 너무도 많은 일본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삼일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곳 미국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애국심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이 캠페인은 일본산 원료를 전혀 쓰지 않는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총판 셀리온 제공입니다



CELLREON



New Origin